고운사, 7월부터 '수행연금' 시행

6월 11일, 종무회의서 결의

고운사승려복지회 심의 거쳐
3급이상 재적승 44명 선정해
CMS 등 통해 기금 모연 진행

박영애 영주지국장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주지 등운)가 7월부터 교구 재적 스님들을 대상으로 '수행연금' 을 지급한다.

의성 고운사는 6월 11일 교구종무회의를 열고 재적스님 중 각처에서 수행하거나 정진하는 스님들을 대상으로 7월부터 수행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결의 내용에 따르면 수행연금 지급 대상자는 고운사 재적승 가운데 3급 이상 스님으로 고운사승려복지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말사주지와 중앙교역직종무원을 제외한 44명이 1차로 선정됐다. 고운사는 매달 10만원씩 해당 스님의 계좌로 입금한다.

이번 고운사 수행연금의 특징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기 위해 말사주지와 중앙교역직, 종무원을 대상에서 제외한 점이다. 소임을 살며 일정 수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순수한 수행연금으로의 성격을 강화한 것이다.

고운사 측은 "보다 많은 스님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기준으로 모금을 기다려 늦게 시행하기 보다는 기금 한도 내에서 빨리 시행하기 위해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고운사 경내를 스님이 포행하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고운사 승려복지사업이 다른 교구에 비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많은 스님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문중의 어른 스님들께서 기금을 출연하시고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기금 조성에 뜻을 모아주셨다. 모두 감사드리며 수행자를 위한 복전인 고운사승려복지회 CMS 계좌 모연에 많은 이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고운사는 향후 초파일 등 행사시 수행연금 후원을 위한 CMS를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등운 스님은 "명칭을 수행연금으로 한 것은 출가한 스님들의 일상생활이 수행이기 때문"이라며 "많은 대중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진하고 있지만 큰 스님들께서 밝히신 방향에 따라 수행풍토 조성에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운사는 2020년 12월 고운사승려복지회를 구성하고, 승려복지제도 시행을 위한 기금 조성에 들어간 바 있다. 고운사는 세부적인 제도 마련과 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운사승려복지회는 고운사 신도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운사승려복지회 108통장 모연' 과 함께 '고운사승려복지회 CMS 계좌' 를 개설해 모금운동을 주도해 왔으며, 수혜 대상자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만복의소리 봉사단 밑반찬 나눔

홀몸어르신 식사문제 해결 도움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 '만복의 소리 봉사단'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식소 이용에 제한을 받는 독거어르신을 위해 밑반찬 만들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6월 26일 쌍봉사 만복의소리 봉사단은 열무 · 얼갈이배추 국물김치, 꽈리고추멸치 조림, 코다리 무조림, 메추리알 조림, 백설기 등 밑반찬을 만들어 독거어르신 가구 30가구에 전달했다.<사진>

이번 반찬나눔 봉사활동은 진안군 자원봉사협의회 사회공헌 기부은행과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봉사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세대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복지시설 휴관 등으로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진행되며 완성된 밑반찬은 봉사자들이 직접 어르신 주택을 방문해 전달한다.

보경 스님은 "홀몸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무더위 속에서도 짧은 시간에 반찬을 만들어 준 봉사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지사장

김제 관음선원 플리마켓 오픈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들에 회향



김제 관음선원(주지 영전)이 군산 대야시장에 대야기차길 플리마켓의 문을 열었다.<사진>

6월 21일 전법과 포교의 일환으로 문을 연 '대야기차길 플리마켓' 은 시장 포교를 하며 판매 수익 전체를 어려운 이웃과 소년소녀가장, 다문화 가정 등에 기부할 예정이다.

오픈식에는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을 비롯해 부원장 도홍 스님, 재무국장 현진 스님, 총무원 사회부장 현담 스님이 참석했다. 또 노래하는 가수 무상 스님과 민경숙 시인, 색소폰, 하모니카 연주자 등이 출연하는 작은 음악회도 진행됐다.

진성 스님은 "이 시대는 부루나 존자의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살필줄 아는 포교를 진행해야 한다. 이웃을 위해 헌신한 관음정사 영전 스님은 현 시대 어둠을 밝힌 포교 전법사"라며 "다종교 시대에 이웃을 살피는 일은 너와 내가 없어야 하며 포교의 도량이 무궁히 발전해야 한다. 이웃과 정을 나누는 대야기차길 플리마켓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조동제 지사장

전주교도소 교정협, 수용자 간식 전달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진성, 태고종 전북종무원장)는 무더위 속에서 참회의 삶을 살고 있는 전주교도소 수용자와 전주소년원 등 청소년 교화시설 청소년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전달했다.<사진>

진성 스님과 불교위원장 현진 스님, 군산 광법사 명법 스님, 염불사 행담 스님, 도안사 명현 스님, 탑밴드 봉사단 등은 6월 25일 전주교도소 2800개, 전주소년원 500개, 자립생활관 200개, 엠마뉴엘 청소년쉼터 100개, 천사마을 청소년쉼터 100개 등 총 3700개의 아이스크림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아이스크림은 (사)장엄, 이화불교사, 전주 천지사, 군산 도안사, 군산 염불암, 군산 광법사에서 후원했다.

최병록 전주교도소장은 "필요한 때 늘 수용자들이 필요한 물품을 기부해주신 진성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는 날 이렇게 후원물품을 전해주셔서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지사장

"와 새 신발, 감사합니다"

완도 신흥사 · 자비신행회
초교 2곳에 새 신발 전달

한반도의 최남단 완도 섬 아이들에게 전해진 새 운동화 선물이 화제다. 완도 신흥사(주지 법공)와 자비신행회(대표 이화영)는 지난 6월 29일 완도중앙초등학교와 완도초등학교 학생 26명에게 후원자들이 마련한 새 신발을 전달했다.

전달식에서 신흥사 주지 법공 스님은 "완도지역을 대표하는 사찰인 신흥사가 모범이 되어 지역사회의 꿈나무들인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공공의 디딤돌을 놓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운동화 지원사업은 그동안 완도지역에서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던 완도의 대표사찰 신흥사와 광주지역에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쳐온 자비신행회가 완도지역 아동들을 위해 공동으로 마음과 정성을 모은 프로그램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국전쟁 호국영령을 기리며"

호국불교조계종, 다부동 법전사
호국 영령 합동 위령대재 봉행



코로나19로 인해 간소하게 진행된 법전사 위령대재.

호국의 달 6월을 맞아 호국불교 조계종 총본산 다부동 법전사(회주 혜륜)는 6월 24일 경내에서 순국선열 호국전몰군경 합동위령대재를 봉행했다.

45회를 맞는 이번 합동위령대재는 제1부 의식집전에 이어 제2부 합동위령대법회로 봉행됐다. 1부 행사에서는 삼귀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개회선언, 법문, 추모사, 봉행사, 발원문 낭독 등이 진행됐다.

법전사 회주 혜륜 스님은 "나라의 위태로움이 영웅을 만들고 위대한 영웅은 나라를 얻는다. 애국이 부처를 살린다면 먹물 옷도 갑옷이요 하늘 덮은 포탄인들 두려움이 있으랴"라며 "다부동 전투에서 혹은 월남전에서 목숨을 던진 애국선열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도 없었다"고 법어를 내렸다.

세계불교국제법황청 초대법황인 혜륜 스님은 45년간 위령대재를 성대하게 지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집전, 공양 올렸다.

진윤 스님은 추도사를 통해 "나라와 겨레를 위해 꽃다운 청춘을 바친 숭고한 동기와 결과에 온 겨레가 영령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 유훈을 받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명복을 빌었다.

전주에서 참석한 민규식 유족회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동족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 당시 순국하신 선열과 호국 전몰군경, 무명용사들의 유해를 모신 위령탑에서 매년 합동위령대재를 봉행하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정순 관음회장은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추모하는 풍토를 조성하자"고 강조했다.

진만 스님은 "조국을 위하여 꽃다운 청춘을 불사른 영령들과 일체 고혼들이시여, 극락왕생하옵소서. 먼저 가신 영령들의 호국 대원을 받들어 이 국토에 평화번영을 성취하게 하소서"라며 발원문을 낭독했다.

이어 세계불교이안종 종정 일선 법조(法照) 스님과 함께 사홍서원으로 위령재를 회향했다.

한편, 다부동 법전사는 해마다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봉행하며 인근 다부동전적기념관과 더불어 호국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10-5282-7292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빙의지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 문제는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야 해결됩니다! 전화상담, 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 빙의의 정의 : 나와 다른 음의 에너지(죽은사람 · 동물 · 식물 · 기타 모든 영적 기운)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신체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함.

■ 빙의문제의 해결 : 신체적,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음적 에너지(영가기운)를 몸으로부터 분리, 천도해 주어야 이상증세, 이상행동이 바로 잡아짐(퇴마와는 다름). 약을 먹거나 병원치료도 효과가 나타남.

■ 여러 빙의증세 및 음적 에너지(영가기운)의 여러가지 영향

① 이사후 집이나 가게 등에 머물러 있는 경우
(집에 우환 발생, 꿈자리 사나움, 가위눌림, 가족간 불화, 가게터와 사업장 여관,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사람이 죽은 경우 장사가 안됨, 사고나 싸움이 잦음)

② 사람에게 빙의된 경우 병원에서 이상은 없다는데 증세는 여전한 경우
가위눌림(밤마다 또는 가끔씩, 수많은 꿈에 시달림, 비몽사몽, 자고나도 몸이 무거움. 토끼(잠들었다. 깨었다를 반복), 불면증(잠못 이룸)

③ 환청(이상한 소리 들림), 환각 증세 일어남
자살충동, 과다한 음주, 폭식, 불안증세, 우울증, 대인기피증, 알수 없는 통증, 초·중·고등학생 · 대학생 이상행동 폭력적 행동, 집중력 저하, 학습능력저하

④ 장례식장, 상갓집, 국내 및 해외여행 다녀온 후 이상 증세 있는 경우

⑤ 동물영가가 들어온 경우
많이 키우고 10년넘게 장사한 경우(집안에 급병, 급사, 우환, 각종사고), 집에 키우던 개, 기타 동물 잡아먹은 경우, 뱀술 등을 먹은 후 이상증세 있는 경우

⑥ 식물영가 (거목 및 꽃나무를 베어낸 경우)가 몸에 들어온 경우
- 머리, 가슴, 팔, 다리 찢어지는 통증이 있으나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경우
· 신기운에 의한 신병, 무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광증 있으신 분
· 병원 다니고 여러번 굿하고 천도재 해도 효과 못보신 분 · 정신과병원 오래 다녀도 차도가 없으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천도가능함) · 상황에 따라 방문상담도 가능하며, 타종교인, 무종교인 상담도 가능

■ 환자상태를 상담해서 문제 해결 프로그램으로 진행 - 육지에 계신 분 당일천도(아침 비행기, 오후 비행기) 가능!
■ 차후 지속관리 상담해 드림 (또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빙의치유전문상담사 (전문자격 갖춤) - 전생빙의 트레이너과정 수료!
■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영가, 신기운 제령 최고의 권위 실력 갖춤 - 20여년 경력, 임상 노하우 갖춤!
■ 원격치유가능 (외국에 있는 환자도 치유가능, 환자가 오지 않더라도 빙의 진단 및 해결)
◉ 오시는 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 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상담문의처 :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 영가천도 전문상담원 문의전화 (064)746-0789